

## 돼지 열사병·일사병 대책



이 오 형 과장  
(미원농장 방역팀장)

해마다 여름만 되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안타까운 계절이다.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무더위로 인해서 혈떡이는 돼지를 바라보면서 돼지를 사육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무더위를 더욱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중의 하나가 모돈·웅돈·후보돈들의 열사병과 일사병이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양관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1. 시설

여름철 강렬히 내리 쬐는 햇볕과, 햇볕으로 뜨거워진 지면이 돈사 안으로 복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철 돈사온도는 외계온도와 차이가 없이 높게 된다. 높은 온도를 조금이나마 낮춰 주기 위해서는 돈사 사이에 그늘을 만들어 준

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차양막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이 있고 돈사 사이에 나무를 심어 여름철에 자연적으로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팬을 설치하거나 대형선풍기를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낮춰 준다. 팬은 돈사가 긴 경우는 중계식으로 설치하고 돈사가 짧은 경우는 앞뒷벽에 팬을 설치한다. 또한 분만사의 경우는 모돈들이 분만이라는 고통이 추가되기 때문에 분만모돈에게 이동식 대형선풍기를 설치하여 준다.

또한 임신돈사에는 모돈 머리에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 장치를 하여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

돈사지붕 위에는 스프링쿨러시설을 설치하여 한낮에 물을 살포한다면 돈사온도가 2°C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물의 여유가 있으면 설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6

돈사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는 차양막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이 있고 돈사 사이에 나무를 심어 여름철에 자연적으로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팬을 설치하거나 대형선풍기를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낮춰 준다.

99

## 2. 사양

열사병,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다면 돼지에게 열사병과 일사병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

### 가. 돼지의 이동 및 수송

이동 및 수송이라는 것은 돼지에게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크나큰 스트레스이다.

겨울에는 호흡기질병의 원인이 되고 여름에는 열사병과 일사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절기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 이동시에 날씨를 보아가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시기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때를 택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동시 시간이 촉박하여 과격하게 이동을 해서는 절대 금물이다. 돼지 이동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이동을 하여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준다.

이동후에는 합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될 수 있으면 이동시 같은 돈방에 있는 돼지를 표시하여 이동중에도 다른 돈

방 돼지에 합사되지 않도록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이 끝나면 충분한 물을 부어 주고 자돈·육성돈인 경우는 니플에서 충분한 양의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여 물을 먹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또한 사료는 이동당일은 절식을 하거나 소량만 급여해 주고 이동후 1주일간은 사료내 영양제, 소화제, 항생제를 첨가하여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빠른 기간에 해소되도록 관리를 해준다.

### 나. 교배

교배는 웅돈과 모돈 모두에게 여름철에는 크나큰 스트레스이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래서 웅돈의 경우 여름철이 되면 승가육이 떨어져서 웅돈 사용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배시키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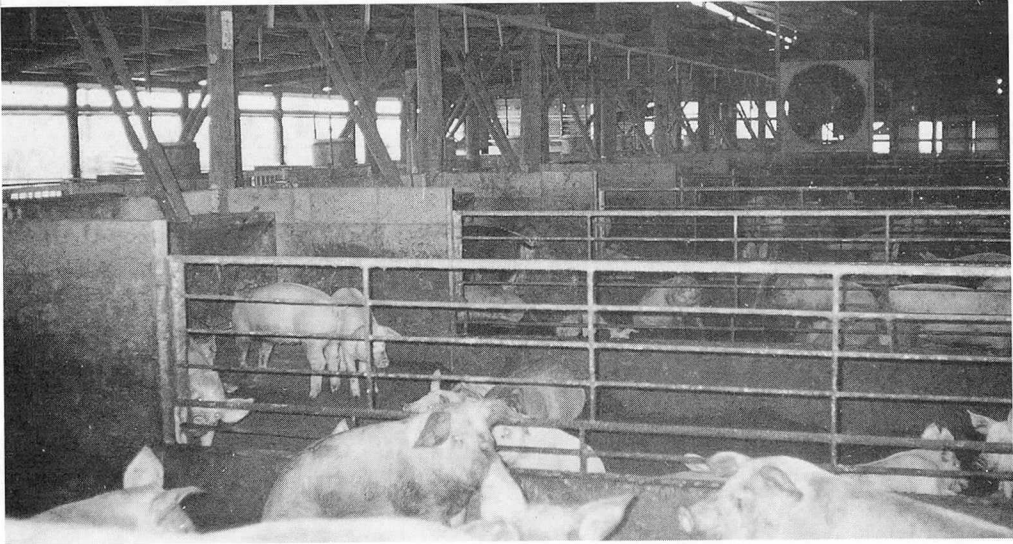
교배는 보통 1일 2회 정도 작업을 하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조기교배를 시키거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선선한 저녁 시간에 교배를 시키며 교배장에는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정상체감온도를 낮게 해준다.

교배가 끝난 웅돈은 사료에 영양제를 첨가해 주거나 교배시 고농도의 비타민 미네랄제제를 근육주사하여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

### 다. 분만사

분만사는 다른 돈사보다도 무더운 돈사이다. 신생자돈을 보호하기 위한 보온기구들이 설치되어 분만시 보온을 해주기 때문이다.

여름철 분만사의 모돈은 산고의 고통에다 무



더운 온도, 다습한 습도 등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지 않으면 분만직전에 열사병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분만사에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계식 송풍기나 대형선풍기를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돼지의 체감온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 라. 음수 확보

여름철은 돼지들이 섭취하는 물의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허실되는 양도 많다.

그러므로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름철 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될 것이다.

물의 양을 미연에 확보하고 여름철 정전이나 기타사고로 물 확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1일 분 정도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음수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

돼지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한 체온상승, 사료섭

취 불량으로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열사병과 일사병 예방대책의 하나이다.

### 3. 치료

열사병과 일사병이 발생했을 경우 돼지를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도의 흥분상태에다 체온이 상승되어 있으므로 해열제를 정맥 또는 근육으로 주사해 주고 호스를 통해서 물을 충분히 뿌려 준다.

물을 뿌려줄 때는 갑자기 뿌렸을 때 심장마비로 폐사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머리부터 전신으로 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태가 불량한 돼지는 수액을 해줘야 한다.

수액은 생리식염수액 1000ml + 대사촉진제 + 해열제 + 영양제 + 항생제를 혼합하여 주사해 준다. 